

HIS STORY, HER STORY, GOD'S STORY

임정식·임여성 권사

우리 부부 선교사 되기 우리 부부 선교사 되기

그(임정식 권사)는 안 믿는 가정의 장남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교회라곤 가본 적도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다. 얼마 후 혼자서 한얼산 기도원을 찾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녀(임여성 권사)는 신실한 믿음을 지닌 어머니의 8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스런 막내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신앙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던 그녀는 거듭남과 성령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갔다.

둘은 교회에서 처음 만났고, 1년여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그의 정성 끝에 감동해 연애를 시작하여 10년 만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은 신앙 생활을 지속했지만 졸업, 취직, 결혼, 아이들 낳고 기르는 일반적인 사이클 가운데서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신앙의 열정이 식어갔다.

1997년 그가 회사에서 중국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 그의 업무는 주로 한국에서 오는 회사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이었다. 으레 그런 일이 그렇듯 몸과 마음이 쉬 지쳐갔다. 자신 뿐 아니라 온 가정이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하루빨리 그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이유도 없이 중국의 서쪽 변방 사막에 있는 우루무치가 떠오르곤 했다.

그녀도 지쳐갔다. 너무도 평탄한 인생, 순조롭기만 하던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느꼈다. 믿음으로 견뎌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담금질하시는 그 분께 날마다 나아갔다. 마침 그곳에 있던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며 장춘으로, 연변으로 사역현장과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헌신을 다짐했다.



둘은 3년 만에 중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염없이 계속되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었다. 귀국 후 일년 만에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했다. 그 무렵 어느 날 그녀는 지쳐있는 남편을 퇴근길에 납치하듯 끌고 교회로 갔다. 다짜고짜 그곳에서 열리는 남성회복세미나에 참석케 했다. 이후 매일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김밥을 싸서 회사 앞으로 갔고, 그는 퇴근하자마자 차 안에서 김밥을 먹고 교회로 갔다. 그 일은 미지근하던 그의 신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에 대해, 묵상에 대해, 믿음에 대해 새롭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흘러내리며 은혜와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때마침 이민수속이 착착 진행되었다. 이민관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이민비자를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캐나다에 가게까지 계약해 놓고 비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금방 나오리라던 비자는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와도 나오지 않아 가게와의 계약을 연기, 재 연기했다. 오직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었다. 더 이상 계약을 미룰 수 없어 그녀가 먼저 가기로 하고 비행기에 오르려던 당일 아침, 비자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가까스로 온 가족이 함께 캐나다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출발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저 떠난다니 마냥 들뜨고 기분이 좋았다. 그 즈음 그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리고 무일푼이었음에도 마음은 날아갈 것만 같았다.

캐나다에 오자마자 둘이 시작한 것은 pet shop 이었다.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니켈(5cent)과 쿼터(25cent)도 구별하지 못했다. 손님만 오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입술이 부르들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 때 가게를 연 이후, 지난해 가게를 그만둘 때까지 한번도 장사가 안돼 힘든 적이 없을 만큼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교회생활도 열심히 했다. 그녀는 마음에 품은 꿈이 있었기에 그레이스 교회 개척 때부터 선교부에서 활동했다. 아내가 참석하는 선교사역을 결심할하던 그는 요나선교학교에 참여하였다가 꿈과 환상을 보고 헌신을 결단하게 된다. 마침내 부부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여러 차례 선교훈련에 참가하면서 선교는 차츰 그들에게 친근한, 아니 점차 당연한 부르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009년 중국으로 단기선교를 가기로 했다. 신장성의 수도 우루무치, 그가 중국에 살 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곳 우루무치는 피안의 세계에서 그렇게 현실의 장소가 되었다. 신장성은 현재 중국에 복속되어있지만, 한족보다 위구르 족이 많이 사는 곳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인종적으로도 그들과 더 가깝다. 이런 이유에다 변방지역이기 때문에 늘 독립을 시도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는 요주의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런데 선교팀이 우루무치에 가기 직전 신장인들이 한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터져 계엄령이 내려졌다.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모두 말렸지만, 기도 끝에



감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이 그의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떠나기 직전에는 급기야 걸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또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주저없이 목발을 짚고서 여행길에 올랐다. 그렇게 어렵게 찾은 우루무치, 그곳에서 이 부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된다.

선교 첫날 찾은 우루무치의 거대한 공동묘지. 돌보는 사람 없어 황폐한, 나무비석만이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초라한 곳에서 순교한 마커선교사 등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았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간 이들이 왜 이렇게 잊혀져야 하는지를 항의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고.

그들은 그 여행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이후 그 일을 위해 줄곧 기도했다. 마침 선교행사를 위해 우리 교회에 오셨던 크리스 해리슨과 게일 덕슨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었다.

우루무치는 GEDA 선교회가 중국 선교를 위해 지정한 6개 포스트 중 한 곳이다. 각 포스트에는 현지인(중국)목사님과 외국선교사가 한 팀을 이뤄 사역한다. 이들은 우선 중국인들과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교회 선교회에서 내몽고 후안무티에 북카페를 열도록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역과 연계되었다. 지난 2010년 GEDA 선교회에서 주최한 영성집회에 박신일 목사님이 강사로 참여하면서 이 사역을 지원하는 그레이스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고 계신다. 우루무치에 다녀온 두 사람은 당연히 우루무치로 갈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그의 마음에 내몽고 후안무티로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 곳에는 이미 사역팀이 있던 터라 사실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GEDA의 중국 책임자가 이들 부부에게 내몽고 후안무티의 사역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어 주저 없이 “예스”라고 대답했다.

이제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7번째 가정이다. 후안무티의 대학가에 북카페를 열어 1층은 카페, 2층은 서점으로 꾸밀 계획이다. 카페는 젊은이들을 부를 것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소개하는 곳이 될 것이다. 2층 서점은 복음으로 변화된 젊은이들이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으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지식을 갖춰나가는 곳이 될 것이다. 오는 6월이면 그렇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 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했던 그녀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시련의 시간들을 주셔서 단련시키시고, 복음을, 기도를, 선교를,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차근차근 가르치시고, 마침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준비하신 뒤 부르셨다. ♣ [엄현주 기자]